

## 터키의 견과류 산업 \*

김 윤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1. 들어가며

시리얼은 1894년에 미국의 환자식으로 개발되어 1983년 국내에 들어와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시리얼은 간단한 아침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침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직장인들이나 가족들의 영양 간식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견과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표 1>의 최근 10년간 주요 견과류 수입을 동향을 보면 2012년 국내 견과류 수입액은 전년대비 약 45.6%가 증가하였다. 국내 견과류의 품목별 주요 수입국을 보면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은 미국산, 밤, 잣 등은 중국산이 대부분이고 헤이즐넛은 국내 수입의 96%가 터키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헤이즐넛 수입국인 터키는 헤이즐넛 이외에 피스타치오, 아몬드, 호두 등의 다양한 견과류를 재배하기에 좋은 기후적 특색이 있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지리적인 장점도 갖추고 있다. 국내 대량 수입품인 아몬드는 터키가 원산지인 식물이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기 시작한 다음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 (kyj4835@krei.re.kr).

표 1 연도별 견과류 수입 추이

구분	2003	2005	2008	2010	2011	2012	증감율	
							'03년대비	전년대비
수입금액	40,152	71,948	114,328	161,643	204,256	297,378	640.6	45.6
수입중량	14,849	17,174	22,804	32,272	35,554	48,332	225.5	35.9

자료: 관세청 (2013)에서 재인용.

한편, 지난해 터키는 시리아 국경지역을 비행하는 러시아 전폭기를 격추함으로써 러시아의 경제 제재 조치를 받게 되었다. 터키는 러시아에서 5번째 수출국이며 수입은 13번째 국가이다. 러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2014년 터키의 과일 및 견과류 수입금액은 8억 2,800만 달러로 대 터키의 최대 수입품목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터키의 정책 기조는 터키 농산물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터키의 현황 및 일반 농업정책과 함께 헤이즐넛 최대 생산지로서 몇 가지 견과류 산업의 생산 및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소비형태, 정책, 한-터 FTA를 통한 견과류 수입동향 등의 내용을 다루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국가 연왕

터키(Republic of Turkey)는 유럽 남동부와 아시아 서부에 위치한 나라로 유럽대륙과 아시아대륙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지리적인 특성이 있다. 면적은 한반도의 8배 크기로 약 78km<sup>2</sup>의 면적을 차지한다. 이슬람교가 전반적이며 민족은 터키계(86%), 쿠르드계(9%), 아랍계, 아르메니아인, 유대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인구는 약 7,800만 명으로 유럽과 중동에서 상당히 큰 시장에 속한다. 또한 터키는 젊은 층 인구나 풍부한 노동력으로 구매력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생산 가능인구<sup>1)</sup>는 전체의 67.8%에 이르고 터키 전체의 생산과 소비를 이끌어 가고 있다.<sup>2)</sup>

터키의 GDP는 2014년 기준 8,001억 달러이며 실질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하였다. 터키는 농수산업이 전체 GDP에서 약 9%에 달하는 농업 선도적인 국가로 농업에 유리한 기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 가능인구의 풍부한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터키에서 농수산업은 GDP의 9%에 달하지만 전체 고용에는 25%

1) 생산이 가능한 연령인 15세~64세에 해당됨.

2) KOTRA 국가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됨.

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터키는 서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근대화되어 있으며 국민총생산과 수출의 대부분은 농업이 차지하고 있다. 경지면적은 2,660만 헥타르로 전체 국토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작농이 다수이며 농업기술이나 관개시설이 부족하여 생산성은 낮다. 그러나 풍부한 노동력과 지리적인 장점을 이용하여 농수산업의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크다. 터키의 풍부한 농업인력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여성 노동력이다. 여성 인력은 농식품 가공, 냉동식품의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터키 주변국은 농식품 산업의 발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터키의 농식품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은 경쟁우위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 및 개선을 통해 농업의 비교우위를 강화해야한다.

표 2 터키의 일반 현황

국명	터키공화국(Republic of Turkey)
위치	유럽 남동부 및 아시아 서부
면적	783,562km <sup>2</sup>
인구	7,769만 명
민족	터키계(86%), 쿠르드계(9%), 아랍인, 아르메니아인, 소수 유대인
GDP	8,001억 달러
실질경제성장률	2.9%
1인당 GDP	10,404 달러
실업률	9.9%
물가상승률	8.9%
산업구조	농목축수산업:8.8%, 제조업:32.9%, 서비스업:59.1% <sup>3)</sup>

주: 통계자료는 2014년 기준임  
 자료: 터키 중앙은행, 대외무역청, 통계청, OECD Stat 재인용.

터키정부는 경제에 대한 국가 관여를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1980년대부터 정책 개혁을 시도하였다. 정책 시행 10년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후 도덕적 해이를 비롯한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적자 및 국가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1994년에는 경제 불황과 재정위기를 겪었다. 이후에 IMF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정부재정정책, 금융 분야 구조조정, 사회복지 개혁, 공공분야 투명성 제고 등의 포괄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시도하였으나 2000년 말 금융기관의 부실 운영, 구조개혁 프로그램의 불이행 우려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터키는 사상최대의

3) 2014 경제분야별 GDP 합계 100.8%.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들었다. 2003년에는 터키 리라화의 강세와 더불어 이자율 하락, 물가상승 둔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터키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견과류, 과일, 밀가루가공품 등이 있으며 주로 중동, 동유럽, 북아프리카로 수출된다. 특히 터키의 견과류 수출 금액을 보면 2013년에 12억 5,8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이것은 2009년에 비해 50%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표 3>은 터키농산물 수출액으로 견과류는 파스타면과 밀가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3 터키 농산물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09년	2013년	증가율(%)
과일	2,750	3,690	34.1
야채	1,354	1,482	9.4
견과류	841	1,258	49.5
밀가루	581	947	62.9
파스타면	149	495	232.2
기타	3,845	6,213	61.5
합계	9,520	14,085	47.9

자료: Global Trade Atlas 재인용.

## 2.1. 터키의 견과류 산업 동향<sup>4)</sup>

### 2.1.1. 헤이즐넛

터키는 견과류 생산량의 세계 3위, 국제 수요의 8%를 공급하고 있고 매년 17만 8,000톤을 생산하고 있다(FAO, 2010). 세계농업기구의 2010년 데이터를 보면 터키 농지의 84만 4,000헥타르에서 매년 약 250만 톤의 견과류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3월말 서리와 가뭄으로 견과류 생산량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터키는 세계 헤이즐넛 생산량의 75%를 생산하고 전체 생산량의 약 75%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헤이즐넛 최대 생산국이다. 2014년 서리 피해를 입은 직후 헤이즐넛 가격은 1kg당 15터키 리라에 거래되었다. 헤이즐넛은 2012년 이후 평균 5터키 리라에 거래되어 평균 대비 약 3배로 가격이 올랐다.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헤이즐넛은 생산량이 예년보다 28%가량이 줄었다. 따라서 2014년 말 고급 초콜릿 회사들은 가

4)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의 터키의 견과류 2014를 참고로 작성되었음.

격 경쟁력을 위해 헤이즐넛 확보에 온 힘을 다해야만 했다. 그러나 헤이즐넛 보급단체 (Hazelnut Promotion Group, HPG)는 “2014년 터키의 헤이즐넛 수출량은 전 세계 110개 국가에 25만 2,000톤에 달하며 2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헤이즐넛은 서리 피해로 인해 약 30%의 생산량이 감소되었으나 가격은 2013년에 비해 80% 증가하였다. 2012년 기준 26만 5,000톤의 18억 달러, 2013년 27만 6,000톤의 17억 달러보다 그 수출액이 증가하였다<표 4 참조>.

표 4 터키의 헤이즐넛 수출 현황

(단위: 1000톤, 10억 달러)

연도	수출량	수출금액
2012	265	1,8
2013	276	1,76
2014	252	2,3

자료: Daily News(2015).<sup>5)</sup>

터키의 헤이즐넛은 48개 도시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생산량의 대부분은 흑해 지역으로 서쪽은 존굴닥(Zonguldak)을 시작으로 그루지야 경계에 이르기까지 터키 북쪽지역으로 이어져있다<그림 1 참조>. 터키의 헤이즐넛 주요 생산 지역은 약 400만 명의 인구가 직·간접적으로 헤이즐넛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헤이즐넛 생산지는 60-65만 헥타르에 달한다. 헤이즐넛 생산지는 3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오르두(Ordu)지역에서 트라브존(Trabzon)지역은 산간지대로서 한해 헤이즐넛 생산량의 55% 가량을 생산한다. 삼순(Samsun)에서 오르두에 걸친 지역은 평지로 전체 생산량의 15%를 조달하고 있다. 삼순에서 서쪽으로 걸쳐있는 헤이즐넛 산지에서는 나머지 30% 가량의 헤이즐넛을 생산한다.

터키의 헤이즐넛은 8월과 9월에 수확하는데 평범한 기후에는 65만 톤을 수확한다. 2014 양곡연도에는 서리 피해로 인해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 약 45만 톤을 수확하였다. 헤이즐넛의 최대 수요자인 이탈리아 페레로그룹은 초콜릿 생산을 위해 터키의 최대 헤이즐넛 수출회사인 올탄 기다(Oltan Gida)와 계약을 맺고 2014년 7월 터키 전체 헤이즐넛 생산의 80%에 달하는 양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다시 헤이즐넛 생산이 안정화되고 가격이 감소하면서 줄어드는 수출액에 대하여 터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5) (<http://www.hurriyetdailynews.com/turkish-hazelnut-export-sales-hit-record-high-in-2014.aspx?pageID=238&nID=76511&NewsCatID=345>).

그림 1 터키의 헤이즐넛 주요 산지



주: 헤이즐넛 생산지역을 생산량에 따라 세 지역으로 나눔(존굴닥~삼순, 삼순~오르두, 오르두~트라브존).  
 자료: 구글 이미지(2016).

### 2.1.2.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는 계절이나 지역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로 해거리 현상(한해는 많은 열매가 열리지만 다음해는 적은양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터키는 피스타치오를 2013 양곡연도에 5만 톤을 생산하였고 생산량이 많은 해인 2014년에는 12만 톤의 생산량을 예상했으나 서리와 가뭄의 피해로 인해 실제 생산량은 71%정도인 8만 5,000 톤에 그쳤다.

피스타치오는 터키의 44개 지역(province)에서 경작되지만 주요 산지로는 터키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나토리아(Anatolia)지역으로 도시는 가지안텝(Gaziantep), 산르우르파(Sanlıurfa), 시이르트(Siirt), 킬리스(Killis), 아드야만(Adiyaman), 마르딘(Mardin), 디야르바크르(Diyarbakir)이다<그림 2 참조>. 이 지역에서의 피스타치오 생산량은 터키의 피스타치오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지안텝과 시이르트 지역의 수확량이 많은 해에는 생산량이 3만 5,000~4만 5,000톤으로 두지역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시이르트 지역은 생산량이 1만 5,000톤에 그친다. 가르시안 지역의 피스타치오는 얇고 작은 것이 특징이며 시이르트 지역의 좋은 가르시안의 종보다는 생산량의 변동성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피스타치오의 상품성은 크기와 관련하여 정해지는데, 100그램 당 90개 이하의 크기를 가진 상품이 1등급이며 2등급은 90~100개, 3등급은 100~120개로 상품의 등급

그림 2 터키의 피스타치오 주요 산지



자료: 구글이미지(2015).

이 정해진다. 터키의 천수답 지역에서 재배되는 올리브나무는 피스타치오로 대체되어지고 있는 추세로 고품질의 피스타치오 생산량이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 결과 터키의 피스타치오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해거리 식물로서의 급격한 생산량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5 터키의 피스타치오 생산 공급 동향

피스타치오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2 양곡연도 <sup>6)</sup>		2013 양곡연도		2014 양곡연도:	
	미국농무부	뉴포스트	미국농무부	뉴포스트	미국농무부	뉴포스트
유실수	29,000	29,000	0	29,000		29,000
무실수	14,000	14,000	0	14,000		14,000
총 수목량	43,000	43,000	0	43,000		43,000
초기 재고량	19,520	19,520	39,420	39,420		17,320
생산량	117,000	117,000	50,000	50,000		85,000
수입량	4,100	4,100	13,000	13,000		5,000
총 공급량	140,620	140,620	102,420	102,420		107,320
수출량	5,100	5,100	100	100		3,500
내수량	96,100	96,100	93,000	85,000		87,000
최종 재고량	39,420	39,420	9,320	17,320		16,820
총 유통량	140,620	140,620	102,420	102,420		107,320

자료: Gain Report(2014).

한편 터키의 피스타치오 생산, 무역과 재고 등의 전반적인 정보는 터키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스타치오의 무역업자들은 생산, 무역, 재고 등의 국가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피스타치의 가격 변동성을 악화시키고 식품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의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따라서 피스타치오 산업뿐만 아니라 견과류 전반에 걸친 생산체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정책을 마련되어야 한다.

### 2.1.3. 아몬드

아몬드의 생산량 또한 기후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터키의 아몬드 개화시기가 3~4월인데 2014년 서리와 가뭄의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은 아몬드는 생산량이 30% 가량 감소하였다. 아몬드는 터키 전역에서 경작되지만 상품화할 수 있는 품종은 지중해 지역과 마라마라해, 에게해 지역으로 집중된다. 터키에서의 아몬드는 상품화하기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종자의 비규격화로 인해 생산량과 품질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터키는 아몬드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아몬드는 미국으로부터 96%정도 수입되는데 2014 양곡연도에 서리와 가뭄의 날씨 때문에 아몬드의 수입량과 가격이 동반 상승하였다. 한편, 이란 아몬드 종자의 수입은 법적으로 터키에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터키에 소비되어지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다. 터키에서 생산되는 아몬드는 자국 생산품이라는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된다. 터키 정부는 아몬드 시행계획 2013-2017을 세우고 5년 동안 8,000만 개의 종자를 심을 예정이다. 아몬드 시행계획은 아몬드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의 산성농도를 증가시키고 토지를 깊이 갈아 뿌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기본이다. 또한 정부는 아몬드 관련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는 49년 동안 무료로 토지를 할당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아몬드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면 관련 기업들도 아몬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3. 터키의 견과류 관련 정책

### 3.1. 에이즐넛 관련 노동 정책

앞서 언급했듯이 터키는 전 세계 헤이즐넛 공급량의 75%를 생산한다. 헤이즐넛은 커피, 초콜릿 등에 중요한 원료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 2011년 터키

6) 피스타치오의 양곡연도는 8월부터 임.



의 공정노동협회는 다국적기업인 네슬레와 함께 헤이즐넛 노동 인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행했다. 총 26개의 헤이즐넛 농장에 대해서 6개 분야 전문가와 함께 헤이즐넛 생산체인까지 폭넓은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팀은 헤이즐넛 농장에 노동법 관련 몇 가지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찾아냈다.

- 불법 노동자 채용
- 근로 기록의 부재
- 근로 차별
- 폭력
- 미성년 근로자 채용
- 공급체인 이력의 부족

공정근로협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은 노동법 관련 정책의 부재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의 차별 등은 문화 지역적 차별과 더불어 다른 규범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터키에는 두 가지 종류의 노동계약이 존재하는데 직업소개소에서 발급한 허가증이 있는 것과 다른 하나는 허가증이 없는 계약서이다. 그러나 허가증이 없는 계약서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다른 종류의 노동계약은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체적으로 근로자들은 헤이즐넛 출하시기에 맞추어 오르두(Ordu)지역으로 이동하여 근로 계약을 획득한다. 왜냐하면 노동계약서를 제공하는 직업소개소는 터키의 남동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노동 계약이 완료되면 소개소는 노동자를 농장 인근 지역으로 배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개소는 10%

표 6 농가 노동자 유형

노동자 유형	비율
타지역 노동자	61.5
타지역 노동자 + 가족 종사자	7.7
타지역 노동자 + 지역 노동자	3.8
그루자아 이주 노동자	7.7
지역 노동자	11.5
가족 종사자	7.7
합계	100

자료 : Fair Labor Association(2012).

의 수수료를 받지만 이런 시스템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직업소개소는 협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는 특권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피해를 조장하기도 한다.

공정근로협회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노동법 개정을 위하여 헤이즐넛 농가를 방문하고 직접 인터뷰하여 농가 노동자의 유형을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편 네슬레사에서는 관련 정책들에 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헤이즐넛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네슬레사의 2014년 진행 보고서에 따르면 네슬레는 가치사슬의 투명성을 위하여 공급 체인의 투명성을 위한 이력을 농가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투명한 이력을 전달 받은 농가에서는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 유통하기 위한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였다. 농장 근로자의 빈곤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435명의 농장 근로자와 중계인 등은 보건안전 교육 및 어린이 노동력 보호를 위한 교육, 농업 진흥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였다<그림 3 참조>.

또한 네슬레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터키 전역을 20개 구역으로 나누어 무작위로 시행하였다. 공정근로협회도 2014년 자체적인 모

그림 3 헤이즐넛 농장 관계자 교육



자료: 네슬레(2015).

니터시스템을 시행하였는데 서리와 가뭄의 피해로 인해 헤이즐넛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타지역 이주 노동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빈곤 문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관이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던 근로 차별, 폭력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네슬레는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인과 공공위생, 식수 제공, 위생을 위한 세면대 제공, 의료용 응급키트 제공 등의 활동을 시행하였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교육의 기회 제공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였다. 더불어 근로자들의 고충을 접수할 수 있는 무료 핫라인을 설치하여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림 4 터키 이주 노동자의 숙소



자료: Fair Labor Association(2012).

### 3.2. 터키의 농업 장려 정책

터키는 지리적·기후적으로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터키 주변국들의 농업 수준은 아직 낙후되어있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잠재력으로 인해 터키가 전 세계 상위 업체들의 지역 본부 및 공급 센터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터키 이웃 국가들의 식품 산업은 터키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터키의 이런 장점을 고려했을 때 동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농산물 수출을 위한 공급센터로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실제로 2014년에는 65억 달러(USD)의 농식품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터키 정부는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잠재적 투자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호의적인 규제, 복잡하지 않은 세금 구조, 경쟁력 높은 농업 노동력 확보,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있다. 터키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5위의 농식품 생산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2023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USD 1,500억의 국내 총 농산품
- USD 400억의 농산물 수출
- 농업 생산과 관련하여 세계 상위 5개 국가들 중 하나가 되는 것
- 850만 헥타르의 관개 가능 지역 확보(현재 540만 헥타르)
- EU에서 제1의 어업국

### 3.3. 연지 생물다양성 보존 프로그램

터키는 지역적으로나 기후적으로 동물과 식물의 최적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종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곳이다. 특히 터키에는 다양한 식물 종이 존재하는데 유럽에서 자생하는 1만 2,000 종 식물 중에 75%에 달하는 9,000 종이 터키에 존재한다. 터키는 많은 철새들의 쉼터로 아프리카에서 구북악구(舊北亞區) 지역(유럽, 사하라 북부 아프리카, 히말리아 북쪽의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한다. 따라서 철새들이 다양한 종들을 옮기고 이후에 터키에서 자생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터키 정부는 종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현지 보존 프로그램(City Conservate Programe)을 농업농촌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MARA) 산하로 시행하고 있다. 식물의 다양한 종의 유전적 보존을 위한 종자 은행에 보관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 및 관리하고 있다. 터키 종자산업종사자 및 생산자 협회(Seed Industrialists and Producers Subunion of Turkey)는 종자법 제 5553호에 따라 설립되었다. 종자법에 근거하여 모든

표 7 터키 견과류 유전자 보호수

종류	개수
호두	101
밤	65
헤이즐넛	504
피스타치오	44
아몬드	223

자료: Ayfer TAN(2009).

---

종자 업체는 생산자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식물육종, 개발, 보증종자 생산, 종자 포장, 마케팅, 유통 전반적인 업무에 걸쳐 관리를 받고 있다.

### 3.4. 피스타치오 에코시티 건립

터키는 세계 3위의 피스타치오 생산국이다. 터키정부가 피스타치오 주요 생산지인 가지안텝지역의 피스타치오 껍질로 열을 생산하는 에코시티 건설을 발표하여 이목을 끌고 있다. 피스타치오 껍질은 킬로그램 당 19.26칼로리의 열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스템으로 각광을 받는다. 프랑스 환경엔지니어회사인 벌깅(Burgeap)은 5년 동안 가지안텝지역과 시리아 인근지역인 킬리스 지역의 3,200헥타르 면적에 에코시티(eco-city)를 건설할 예정이다. 에코시티는 이뿐만 아니라 녹색지붕, 태양에너지, 폐기물관리, 빗물저장 등의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벌깅은 동 프로젝트에 1년간 약 6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aily News, 2014.4.18.).

## 4. 끝마치며

2012년 한국과 터키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을 하고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악영향이 적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의 2011년 기준 헤이즐넛의 수입금액은 263만 1,000달러로 농수산물 수입 상위 5위에 있었다. 한-터 FTA 합의는 웰빙을 위한 건강 간식 등의 관심이 커지는 요즘에 저렴한 가격의 영양가 높은 견과류를 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분명하다.

지난 해 시리아 인근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제재 조치는 터키의 견과류 산업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반면, 기후에 영향을 받는 견과류 특성상 2014년 서리와 가뭄의 피해는 견과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지만 오히려 견과류 가격을 상승시켜 전년도에 비해 수익이 증가하는 흥미로운 양상을 보였다.

국내 견과류 수입의 대부분은 미국, 중국, 호주 등이 차지하고 터키는 헤이즐넛 수입국으로서 국내에서는 견과류 주요 수입대상국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장점과 유리한 기후조건으로 다양한 농식품이 재배되는 지역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의 농산물 수출입 공급센터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국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터키의 견과류 관련 정책을 보면 헤이즐넛 최대 생산국인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정

부의 노력과 민간의 활동을 엮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적 개선과 함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터키 정부는 농산물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생산 세계 5위의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과격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종다양성 보호를 위한 터키의 현지 보존 프로그램은 터키 농업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식물 생장에 좋은 기후적 특색으로 많은 농산물이 자라는 터키에서 종 보존을 통해 농업 발전 방안으로의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스타치오 껍질의 열을 이용한 친환경 도시를 건설 계획하면서 견과류 최대 생산국을 넘어 친환경 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관세청. 2013. 최근 10년간 주요 견과류 수입 동향. 관세청.
- Ayfer Tan. 2009. Country Report on the state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Turkey. AARI.
- Cemal Atici. 2013. Food Safety Regulations and Export Responses of Developing Countries : The Case of Turkey's Fig and Hazelnut Exports. FAO.
- Fair Labor Association. 2012. Assessment of the Hazelnut Supply Chain and Hazelnut Harvest in Turkey. FLA.
- Nestle. 2012. Nestle Action Plan on the Responsible Sourcing of Hazelnuts from Turkey. Nestle.
- \_\_\_\_\_. 2015. Progress Report on Responsible Sourcing of Hazelnuts. Nestle.
- USDA. 2014. Gain Report : 2014 Turkey Tree Nuts Annual. USDA.
- \_\_\_\_\_. 2015. Gain Report : Turkey Tree Nuts Annual Report. USDA.

### 참고사이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식량농업기구([www.fao.org](http://www.fao.org))
- 미국농무부([www.usda.gov](http://www.usda.gov))
- Daily News([www.hurriyetdailynews.com](http://www.hurriyetdailynews.com))